

해외 수산생물 질병발생 동향

2014. 12. 19 (금)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

태국 업체 Charoen Pokphand Foods 회복세, 말레이시아는 흰반점병으로 인해 손실(11.15)

- 태국 브로커 업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Charoen Pokphand Foods의 새우 양식 부문이 회복세에 있으며 2015년에는 적자를 면할 것으로 예상됨. 해당 업체의 2014년 3/4분기 재무제표를 보면 해당 업체가 EMS에서 회복하며 이미 손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음. 2014년 3/4분기 새우 생산 증가로 인해 해당 업체의 손실은 1379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손실이 71%, 전기 대비 51% 하락함.
- 하지만, Charoen Pokphand Foods의 말레이시아 새우 양식장은 흰반점병 바이러스로 인해 타격을 받았고, 이로 인해 손실이 있을 것이며, 이러한 추세가 2015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.

출처 : <http://aquatic.animalhealth.org/article/cpfs-recovery-track-whitespot-malaysia>

노르웨이, 아메바 아가미병 일부 지역의 영구 정착에 우려 표명(11.19)

- 아메바 아가미병이 스타방에르(Stavanger) 지역에서 해안을 따라 송네 피오르(Sognefjord)지역으로 확산되었다.
- K. Strømmen Lakseoppdrett AS(업체) 소속 Sven Jørgen Strømmen은 NRK(노르웨이 국영 방송국)에 “많은 어류가 폐사했다”며 “피해액이 벌써 천 만 크로네에 달했다”고 말했다.
- 로갈란주(Rogaland County)의 수의사 Erling Bleie에 따르면 Stavanger 근방 뤼필케(Ryfylke) 지역에서는 올해 아메바 아가미병으로 인해 대량 집단폐사가 발생했다.
- 그는 “이번 가을에 여러 시설/부지에서 발병이 있었다. 나는 로갈란주(Rogaland County)에서 일하는데 이 지역 모든 시설/부지 중 약 1/3이 어류 치료 조치를 해야 했다. 연어 중 약 50%가 아메바 아가미병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해당 질병이 영구적으로 정착해 양식 업계 어족이 손실되고 모니터링 및 치료 비용이 증가할까 우려된다”고 말했다.

출처 : http://www.fishfarmingxpert.com/index.php?page_id=0&article_id=109213